

## 트리아세테이트 복합소재 「CAROS」

Mitsubishi Rayon Textile은 2014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Premiere Vision 2014에서 「CAROS」를 발표하였다.

「CAROS」는 트리아세테이트 복합소재이며, 특수 사가공으로 융착가연사의 꼬임수를 랜덤으로 변화시켜 기존 융착사에는 없는 부드러운 탄력과 자연스러운 외관을 부여한 새로운 소재이다. 특수 사가공으로 표현되는 외관은 2015년 S/S 트렌드인 「경량성과 탄력성」을 잘 나타내었다.



「CAROS」 소재를 이용한 의류제품

Premiere Vision 2014 포럼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Mitsubishi Rayon Textile 부스 내의 여러 제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러 트리아세테이트 소재가 포럼관에 전시되어 Mitsubishi Rayon Textile 부스를 방문한 업체 수가 지난 전시회에 비해 27%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CAROS」는 실크 오건디(organdy)와 같은 고급스러움과 적당한 탄력감이 있으며, 가벼우면서 독특한 입체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면·마 보일(voile)과 같은 자연스러운 외관을 가지며, 트리아세테이트 특유의 드라이한 질감이 리넨 혼방제품과 같은 상쾌한 촉감을 나타낸다.

♣ Mitsubishi Rayon Textile News